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5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음 깨기

가벼운 밸런스 게임

- 평생 한 가지 상태로만 살아야 한다면?
- (1). 에어컨 없는 한여름 방안
- (2). 보일러 없는 한겨울 방안

- 여름 휴가, 당신의 완벽한 선택은?
- (1). 사람이 바글바글하지만 핫하고 시원한 바다/워터파크
- (2). 사람 없이 한적하고 조용한 숲속 계곡/호캉스

- 1. 각자의 취향을 나눠보세요
- 2.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쉼을 나눠보세요

교회행사

5월

1-5일	더함공동체 태국 단기선교
3일	어린이주일 / 오렌지데이
10일	어버이주일 / 더가족세미나 5기 개강
23-24일	더함공동체 여름수련회
30일	어와나 지역 올림픽
31일	더가족 세미나 5기 종강

6월

7,14일	풍삼초 이끄미 세미나 5기
14일	어와나 1학기 종강
15-17일	어와나 EBS
20일	더깊은 선교학교 개강 / 결혼 예비학교 개강
26-28일	더원 공동체 여름수련회

경배 찬양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붉은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선교

[전준선 선교사]

나미비아

1. 나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2. 에로스 여중 고등학교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3. 자녀 보라, 실리를 위하여

소식

1. 호스트패밀리 모집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믿음의 가족이 되어 정서적 지지와 생활의 도움을 나누는 선교 사역입니다. 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결혼예비학교

오는 6월 20일(토)부터 7월 11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요셉의 꿈에서 4주간 진행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모세미나

아이와 대화를 잘하고 싶은 모든 부모, 아이에게 꿈을 찾아 주고 싶은 부모,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HUPE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한 문장 큰 울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없다."

- 장 칼뱅 -

[창세기 47장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 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형들의 심부름을 떠난 지 22년 만에, 요셉과 야곱은 가나안이 아닌 애굽 땅 고센에서 극적인 재회를 이룹니다.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다가 또다시 껴안는 이산가족의 상봉 같은 장면 속에는, 그동안 쌓인 그리움과 기쁨,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녹아 있습니다.

1. 왜 고센 땅일까?(46장 34절)

당시 가나안은 온갖 문화가 뒤섞여 흡수되기 쉬운 곳이었기에,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그들을 분리된 공간인 고센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애굽인들이 목자를 가증히 여겨 차별한 그 구조를,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보존의 장치'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의 감옥, 모세의 광야, 다윗의 아들람 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낮아짐과 숨겨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살리고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눔] 세상의 눈에는 실패나 차별처럼 보이지만, 나를 영적으로 보존하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정체성의 공간, 고센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 중심부에 들어갈 포장된 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손해를 보는 "목축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밝히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생존보다 정체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센의 핵심은 '구별(거룩)'입니다. 이는 세상 밖으로 도망치는 도피가 아니라, 세상 안에 살면서도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훗날 출애굽 때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렸어도 고센에만 빛과 보호가 있었던 것처럼, 고센은 '언약적 보호'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 역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빛으로 부름 받았습시다.

[나눔]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소외될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야 했던 적이 있나요?

3.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의 무게 (47장 9절)

대제국의 왕 바로 앞에 선 초라한 노인 야곱은 오히려 바로를 두 번이나 축복합니다. 바로가 그의 나이를 물을 만큼 깊은 인상을 받은 이유는, 야곱이 고백한 '나그네 길의 세월' 속에 깃든 신비한 영적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축복의 힘은 가벼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 속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져진 '삶의 연륜'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옵니다.

[나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과 권위를 끼치는 삶이 되기 위해,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4.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요셉을 통해 심각한 기근에서 온 땅이 살아남음으로써 기막히게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은 생의 마무리에 이르러 이 약속이 실체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인생에서 짜릿하고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나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고백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눔	[창세기를 통해 배우는 교훈 / 창세기 46장 28절-47장 12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며 말씀을 비추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정체성을 지키는 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